

신자유주의 시대, 고전 읽기의 의미와 가능성: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을 중심으로*

김 지 혜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시장화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일차원적 인간』(1964) 독서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고전 읽기 수업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구한다. 디지털-네이티브(native) Z세대 호모 에코노미쿠스 수강생들은 광범위한 디지털/온라인 문화의 영향으로 깊이 읽기 능력과 인지적 인내심이 부족한 상태이다. 동시에 그들은 기업가적 주체로서 '잔인한 낙관주의'로 자기 소진을 감내하며 인적 자본의 확충에 몰입한다. 마르쿠제는 기술적 합리성의 지배가 대중을 생계 노동에 함몰시키고 사회를 전체주의화한다고 비판한다. 학생들은 『일차원적 인간』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직접적 동일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면술적/마술적 언어가 어떻게 언설 세계를 폐쇄하는지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더불어,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가 궁극적인 진리나 본질이 아니라 우연한 현상이라는 것도 배우게 된다. 반면에, 그들은 생존 불안과 내면화된 수동성으로 인해 실존의 평화 회복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교양 교육과 고전 읽기 수업은 자유로운 삶이 생존 투쟁의 극복과 부정적 사유의 실천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주제어 : 『일차원적 인간』, 고전 읽기, 호모 에코노미쿠스, 직접적 동일화, 생존 투쟁, 부정적 사유, 교양 교육

* 논문을 꼼꼼히 검토해주시고, 수정 사항을 제안해주신 심사 위원 선생님들께 감사 드린다.

현대의 청년은 “돈을 주시오, 그러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 그는 자기에게 돈만 있었다면 어엿이 살아갈 수도 있었고, 또 위대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품고, 자기 자신을 뉘우치는 일 없이 죽어갈 것이다.¹⁾

외적인 시급한 필요와 구별되고 심지어 그것과 대립하기도 하는 내적인 차원 (...) ‘내적 자유’라는 관념이 여기에서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고 또한 그렇게 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가리킨다. 오늘날 이 개인적 공간은 기술적인 현실에 의해 침입당하고 깔려나가고 있다.²⁾

I. 들어가며

신자유주의적 시장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의 대학 사회는 인문학을 축소하고 산업/기술 발전과 연계된 기능적 실용 학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많은 교육 사상가들은 대학이 시장에 잠식되고 인문학/교양 교육이 후퇴하는 현상을 교육과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한다. 교육이 민주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게 되면, “시민적 가치”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침식되고 희생된다는 것이다.³⁾ 교양 교육(liberal arts)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삶”,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제공해야 한다.⁴⁾ 그러나 현재, 많은 대학생은 ‘좋은 삶’을 생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인 삶이 아니라, 소비와 경제적 부를 극대화하는 삶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자신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증진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에게 생존은 단순히 물리적/경제적 생존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의미한다. 잉여가 되어 도태될지 모른다는 불안은

1) 쇠안 키에르케고어, 『반복/현대의 비판』, 임춘갑 역, 치우, 2011, 226쪽.

2)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 박병진 역, 한마음사, 2009, 57쪽.

3) 헨리 지루, 『신자유주의 테러리즘』, 변종현 역, 인간사랑, 2009, 208쪽.

4) 웬디 브라운 『민주주의 살해하기』, 방진이 역, 내인생의책, 2017, 257쪽.

그들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높이는데 열성적으로 몰입하게 만든다. 따라서 대학 강의실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경영의 이념과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oeconomicus*, 경제적 인간) 학습자들의 이해가 조우하고 병합하는 공간으로 변형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비판적 사유, 성찰 능력”, “사색할 수 있는 능력”, “타자의 경험을 상상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투자수익률과 대학 평가 지표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대학은 민주주의의 존속과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의 재정 확보와 수익 증진을 위한 구조 조정이나 교과 과정 개편에 집중하다 보면, 비판적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양 교육이 부차화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환경은 독서 토론이나 고전 읽기 교육에 큰 장벽과 제약이 된다. 독서나 고전 읽기는 가성비와 재미, 쓸모를 중요시하는 학생들에게 ‘성과’ 없는, 느리고 지루한 작업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교육과 독서의 위기는 고전 읽기의 사회적 유용성을 새롭게 환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고전 읽기와 독서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자생적 사고력과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적, 비판적 시각을 확립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 문화적 정치적 선택의 역동적 참여자”가 되기 위한 인식 훈련은 진보적인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기초 역량이 될 수 있다.⁶⁾

마르쿠제는 『일차원적 인간』에서 기술적 합리성(technological rationality)의 지배가 대중을 생계 노동에 함몰시키고 사회를 전체주의화한다고 비판한다. 기술적 합리성은 기술 발전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정당화하는 가치 체계가 전 사회 영역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기술적 합리성이 반대와 저항을 상쇄시키고, 정치의식을 퇴행시킬 것이라는 마르쿠제의 견해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을 육화하고 있는 학생/독자들에게 시의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발달 이후 사고의 획일적 편향과 상호 감시가 전면적으로 증폭되었고, 기술적 편이가 사회적 모순과 억압을 은폐하는 새로운 놀이 문화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쿠제가 분

5) 마사 누스바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우석영 역, 궁리, 2011, 35쪽.

6) 같은 책, 127쪽.

석한 기술 합리성의 형태와 기제들이 현대 사회에서 더 노골화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차원적 인간』은 동시대성과 재론의 의의를 충분히 담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강의실에서 고전을 읽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전읽기와글쓰기>라는 독서 토론 과목에서 『일차원적 인간』을 강의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수용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고전 읽기의 의미와 한계를 탐문한다.⁷⁾ 수업 토론에 대한 참여 관찰과 학생들의 글쓰기를 검토하면서, 본고는 학생들을 디지털 정보 소비자에서 비평적 독자로 거듭나게 하는 고전 읽기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Z세대 호모 에코노미쿠스 독자의 특성

1. 디지털 문화와 ‘읽기’의 위기

디지털-네이티브 Z세대는 이른 청소년기부터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SNS)를 친숙하게 사용해 온 세대이다.⁸⁾ Z세대는 언제나 온라인에 과잉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부 자극 없이 홀로 성찰하는 고독의 시간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⁹⁾ 고독의 학습은 집중력과 깊은 상관성이 있고 인터넷과

7) <고전읽기와글쓰기>는 2014년, 이화여대 사고와표현 영역의 2학년 기초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었고, 기초 필수 과목을 축소하는 교양 개편 과정에서 6년 만에 폐지되었다. 이 과목은 35명 정원으로 인문/사회, 문학, 젠더, 과학/기술이나 예술 영역에서 선정된 4개의 텍스트를 읽으며 토론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글은 2019년 2학기의 3개 분반 수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8) 디지털-네이티브 Z세대는 2000년대 전후에 출생한 인구 집단으로, 디지털 기기를 전면적이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세대이다. - 박치완,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문화콘텐츠연구』 26호, 2019, 12쪽, 27쪽.

9) 지그문트 바우만,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조은평·강지은 역, 동녘, 2012, 25쪽, 31쪽.

휴대전화,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에 반비례한다. 장시간 인터넷 사용은 뇌에 강력하고 빠른 변화를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온라인으로 접하는 과다 정보는 인지 부하(cognitive load)를 유발함으로써 이해력, 기억력, 집중력을 저하시킨다¹⁰⁾. 따라서 대다수 수강생은 인쇄 매체를 읽는 끈기가 부족하고, 책을 정독하는 능력도 매우 저조하다. 많은 학생이 고전이 난해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실제로 책의 난이도 문제라기보다는 집중해서 깊이 ‘읽기’ 자체를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지적 인쇄”가 결핍된 세대야말로 독서를 통한 집중과 몰입이 더더욱 필요하다.¹¹⁾

온라인 “훑어보거나 비선형적 읽기”의 습관은 독자의 지위를 전자 데이터의 사냥꾼이나 수집가로 변질시켰다¹²⁾. 이제, 지식은 책을 읽고 이해하면서 학습자가 스스로 탐색하고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하는 정보가 되었다. 디지털의 빠른 속도와 스크린 중심의 일상은 삶의 깊이를 만들어 주는 내면의 사색을 방해한다.¹³⁾ 동영상이나 시각적 이미지 ‘보기’에 익숙해지면, ‘읽기’가 불편해지는 문화적 난독증이 일어난다. ‘읽는 뇌’의 회로가 생성하는 관조의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의 공감 능력과 반성 능력도 퇴화하고 있다.¹⁴⁾ 책을 읽지 않는(못하는) 세대에게 나타나는 과도한 공격성과 혐오도 이러한 맥락과 연관된다.

한편,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SNS 상의 지배적 여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체적인 사고력과 성찰적 태도도 약화되어 있다. 많은 학생은 찬/반, 공감/비공감의 이분법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한쪽에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문화적 소속감을 느끼고 삶의 불확실성과 심리적 불안을 상쇄하고자 한다. 온라인/SNS 문화가 “전면적인 통제와 감시”를 실행하는 디지털 파놉티콘의 역할을 함에 따라, 획일화된 “투명 사회”는 “타자, 낯선 것, 불일치”를 제거한다.¹⁵⁾ 따라서, 학생들은 동류

10)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최지향 역, 청림출판, 2014, 174쪽, 187쪽, 189쪽.

11) 매리언 울프, 『다시, 책으로』, 전병근 역, 어크로스, 2019, 288쪽.

12) 카, 앞의 책, 206쪽.

13) 윌리엄 파워스, 『속도에서 깊이로』, 임현경 역, 21세기 북스, 2019, 31쪽, 71쪽.

14) 울프, 앞의 책, 37쪽, 286쪽.

15) 한병철, 『심리 정치』,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5, 20쪽, 106쪽. ‘투명 사회’

집단끼리만 소통하기를 선호하며, 차이와 이질감, 타자에 대한 원초적인 반감과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소설가 조너선 프랜즌은 기술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계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거나 생산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읽고 쓰는 “정적(stillness)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¹⁶⁾ 디지털 분주함(busyness)에 빠져 있는 Z세대 학생들에게 독서는 사색의 고요함과 집중력을 훈련할 수 있는 정적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¹⁷⁾

2. 자기계발 주체의 ‘잔인한 낙관주의’

대부분의 수강생은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에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면서도, 능력에 의한 차별적 위계화가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믿는다.¹⁸⁾ 그들에게 자본주의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체제이며, 경제력은 권력의 유일한 지표이자 척도이다. 푸코는 고전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에서 신자유주의적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의 전환을 설명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교환의 영역에 한정된 경제적 행위자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이자 자신의 기업가라고 정의한다.¹⁹⁾ 기업가적 주체성을 내면화한 학생들은 생존주의에 입각해서 자신의 현재를 조직하고 미래를 기획한다. 따라서 경제적

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유통, 전시, 감시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전면적 개방성을 지칭한다. 한병철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일탈이 불가능해지고 동일화가 증대된다고 비평한다.

16) 울프, 앞의 책, 294쪽.

17) Lev Grossman, “Jonathan Franzen: Great American Novelist,” *Time*, Aug. 12, 2010.

18) 세대론은 교실에서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의 의식과 정서 혹은 예외적 소수를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학생’/‘청년’/‘수강생’ 등의 집단적 호명은 획일적인 일반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형성되는 지배적 경향을 지시한다. 박권일은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정의’나 ‘공정함’의 뜻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한다. - 박권일, 「헬조선 체제를 유지하는 파국론」, 『황해문화』 90호, 2016, 78쪽.

19) Michel Foucault, *The Birth of Bio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226, P.268.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대한 추가 설명은 Foucault, 같은 책, p.226 참고. “*Homo aecomicus* is (...) an entrepreneur of himself. (...) being for himself his own capital, being for himself his own producer, being for himself the source of [his] earnings.”

효율성과 물질만능주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세계 인식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생존이 삶의 가장 응급하고 우선적인 과제가 되면, ‘생존주의’는 청년의 심리를 조직하고 작동시키는 ‘마음의 구성체’가 된다.²⁰⁾

수강생들이 헬조선에서 살아남기에 열중하는 것은 ‘잔인한 낙관주의’로 행복을 유예하고 미래의 만족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혹독하게 견디기 때문이다.²¹⁾ 로렌 벌랜트에 따르면, “잔인한 낙관주의”(cruel optimism)는 약속을 실제적 성취로 오인하며, 욕망의 실현을 약속하는 (불확실한) 가능성에 애착하는 상태를 말한다.²²⁾ 벌랜트는 삶을 재생산하는 노동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소진하는 모순이야말로 ‘평범한 삶’에 내재한 “고통의 일상성”과 “규범성(normativity)의 폭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논평한다.²³⁾ 학생들은 성공적인 삶(경제적 부)을 약속하는 자기 착취가 매우 괴롭고 자기 파괴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하는 대상(‘좋은’ 삶으로서의 ‘평범’한 삶)에 대한 환상적 애착을 포기하지 못한다. 낙관주의가 잔인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생존(희망의 약속)이 일회적으로 획득,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경쟁의 “영구적 연쇄”에 속박된다.²⁴⁾ 따라서 대다수 학생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외부적 압박과 자발적 의지 속에서 자기 관리의 분주한 삶을 규범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인다. 분주한 삶이 좋은 삶을 약속한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스스로 설정한 삶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거나 멈추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고전 읽기는 “사고, 감정, 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의 공백”(멈춤)을 만들어 준다.²⁵⁾

20)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권 1호, 2015, 218쪽.

21) ‘헬조선’은 지옥이라는 영어 ‘hell’과 한국의 후진성을 ‘조선’에 비유하는 합성어로, 지옥 같은 한국 사회를 의미한다.

22) Lauren Berlant, “Cruel Optimism,”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17.3, 2006, p.21, p.33.

23) 같은 글, p.23.

24) 김홍중, 앞의 글, 194쪽.

25) 파워스, 앞의 책, 89쪽.

III. 『일차원적 인간』의 주요 논점

마르쿠제는 비판적 사회이론 연구의 산실인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 school)의 대표적 사상가이며, 1960년대 신좌파 운동에 정치적 영감을 제공한 학자이다.²⁶⁾ 마르쿠제에 따르면, 기술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를 전체주의적으로 통합하는 지배 체제를 구축한다.²⁷⁾ 기술 합리성이 지배하는 선진 산업사회는 반대 여론이 체제 내적으로 통합되거나 흡수되기 때문에, 사회적 모순들도 근본적인 사회 변화(‘질적 변혁’)로 해결되기 보다는 체제 유지적인 개선(‘점진적 진화’)의 대상으로 축소된다. 기술 발전과 효율성의 증대는 사람들의 부정적 사유(negative thinking, 비판적 사고)를 차단함으로써 현상과 본질, 현실과 가능성의 간극과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차원적 인간을 양산한다. 마르쿠제는 정치, 언어, 문화/예술, 사회조사/연구, 철학 등 다양한 영역을 탐사하면서, 기술 합리성과 조작주의(operationalism)의 긍정적 사유(체제 옹호적인 사고)가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형성한다고 논증한다.

몇 가지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일차원적 인간』의 주요 논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적 동일화”(immediate identification)는 체제 유지를 위해 설정된 사회적 필요를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²⁸⁾ ‘직접성’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 과정(초월/추상/매개)을 거치지 않고 현상이 전제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의심 없이 수용하는 순응적 태도이다. 즉, 외부에서 강제되는 사회적 명령과 자신의 자발적인 욕구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가 해소되어 일체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부정적 사유”는 기존 질서에 가려진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저항적 인식을 의미한다. 본질적인 가능성(essential potentiality)은 기존 질서를 파괴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정적 사유는 “진리의 전복적(subversive) 성격”과 호응한다.²⁹⁾ 체제 유지적인 관점에서 보

26) 더글러스 켈너, 「제2판 서문」, 마르쿠제, 앞의 책, 9쪽, 31쪽.

27) 마르쿠제, 앞의 책, 42쪽, 43쪽.

28) 같은 책, 57쪽.

29) Herbert Marcuse, *One-Dimensional M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면, 기존 질서는 모순이나 문제가 없으며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사고는 “사실(is/이다)과 당위(ought/이어야 한다) 사이의 결정적인 긴장”에 천착해서 불완전한 현실을 당위(궁극의 이데아)에 근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³⁰⁾ 주어진 ‘사실’(자본주의)이나 현상이 진리나 실재(reality)가 아니라는 문제의식 속에서만 현 체제를 변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사회적 조건이 불평등하고 부자유하다는 비판적 인식이 있어야, 평등하고 자유로운 ‘다른 질서’를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정적 사유는 역사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마르쿠제는 생계 벌이를 위한 노동을 “생존 투쟁”(struggle of existence)으로 명명하면서 기술적 합리성이 현대인의 생존 투쟁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한다. 그는 생존 투쟁에 얼마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통제하고 해방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기제라고 지적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자율성을 회복,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계 노동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존의 평화 회복”(pacification of existence)을 이뤄야 한다.³¹⁾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기초 생활의 필연(necessity) 영역에 예속되어 있으며, 더 많은 소비와 안락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한다.³²⁾

마르쿠제는 선진 산업사회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에서 일차원적 태도와 행동을 강화하는 언어들이 통용된다고 분석한다. 언설 세계(the universe of discourse)가 폐쇄되면 현행 담론에 대한 비판과 논증이 사라지고, 직접적 동일화를 유도하는 “최면술적/마술적 언어”가 득세한다. 최면술적/마술적 언어는 권위주의적/의식적(ritual) 언어와 유사한 용어로, 반복적인 세뇌를 통해서 “암시적인 명령”처럼 내면화되는 언어들을 지칭한다.³³⁾ 이러한 언어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대중은 “왜곡되고 단축된 의미”를 주입 당하고, 해석에 대한 주체적 개입 없이(추상/초월/매개) 언어의 고착된 의미를 기계적

2002, p.136. 이하에서 번역 도서의 해석이 매끄럽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는 영어 원서를 참조, 인용하고자 한다.

30) 마르쿠제, 앞의 책, 184쪽.

31) 같은 책, 63쪽.

32) Marcuse, 앞의 책, p.20, p.35.

33) 마르쿠제, 앞의 책, 140쪽.

으로 받아들인다.³⁴⁾ 최면술적/마술적 언어는 “사실의 배후에 있는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눈앞에 존재하는 사실만을 진실이라고 믿게 함으로써 “현존 권력의 언어만이 진리”라는 의식을 조장한다.³⁵⁾ 따라서, 최면술적/마술적 언어는 부정적 사유를 차단하고, 체제 순응주의를 재생산하는 도구가 된다.

IV. 일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독서, 나는 이것을 여행의 과정으로 생각하곤 한다. 우리는 익숙한 실존의 세계에서 자신을 쫓아낸다. (...) 독서가는 공간 속에서 이주민이 되어 실존 세계로부터 날아오르는 동시에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방축하여 현재 세계를 표류하는 것이다.³⁶⁾

『일차원적 인간』을 읽은 수강생들의 가장 큰 성과는 일차원적 사회에 대한 직접적 동일화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탕누어가 지적하듯이, 학생들은 『일차원적 인간』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일차원적 사회를 이주민의 시각으로 낮설게 바라보게 된다. 내부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시선으로 세계를 조망한다는 것은 직접적 동일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유도한다. 마르쿠제에 따르면, 일차원적 인간은 “소외된 실존”에 잠식당하며 사회에서 부과되는 “거짓된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³⁷⁾ 학생들은 『일차원적 인간』을 읽으며 자신의 욕구가 타율적으로 강요된 것이었고, 자신의 삶에 진정한 욕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강생들은 수업과 글쓰기 과제에서 자신이 생존 투쟁에 매몰된 “승화된(sublimated) 노예”였다는 내용에³⁸⁾ 깊은 인상을 받

34) 같은 책, 139쪽, 140쪽.

35) 같은 책, 146쪽, 151쪽.

36) 탕누어, 『마르케스의 서재에서』, 김태성·김영화 역, 글항아리, 2017, 85쪽, 91쪽.

37) Marcuse, 앞의 책, p.7, p.13.

38) 마르쿠제, 앞의 책, 80쪽. 마르쿠제가 세계 노동에 몰입하는 현대인을 승화된 노예라고 명명한 것은 자신이 자유롭다는 허위의식으로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았다고 반응했다. 놀랍게도 대다수 학생은 『일차원적 인간』을 읽기 전까지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됐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기술 진보가 “생활 수준의 향상과 통제로부터의 자유화”를 촉진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속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가정했다는 것이다.³⁹⁾ 그들은 ‘자유’와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같은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자유가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복지 국가에서 물질적 안락에 편승함으로써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이 정치적 예측의 일환이라는 마르쿠제의 입장은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마르쿠제는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⁴⁰⁾ 이러한 마르쿠제의 논점은 학생 독자들에게 진정한 자기 결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차원적 인간』을 통해서 자기 결정이 부재한 조작적 욕구의 문제를 간파하면서도,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거짓된 욕구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표현한다. 그들은 지배 가치에 순응하면서 얻는 보상과 만족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학생 A는 독서 후기에서 기존 교육을 통해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웠”지만, 자신이 학습한 교육 내용에 “주어진 삶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서술한다.⁴¹⁾ 마르쿠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일차원적 청년 세대는 부정적 사유와 비판적 이성이 배양되는 “정신의 내적 차원”이 극도로 축소된 상태에 있다.⁴²⁾ 개인과 사회,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가 지워지면, 고유한 자아의 범주가 붕괴되어 ‘나’와 사회는 일치와 모방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직접적으로 동일화되어 있는 한, ‘나’만의 고유한 욕망과 이익을 분리하기가 불가능해진다. 많은 경우, 학생들은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위한 행위들을 자기 노력과 성취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욕망을 자신의 고유한 욕망으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거짓

39) Marcuse, 앞의 책, p.46.

40) 마르쿠제, 앞의 책, 87쪽.

41) 이하 알파벳으로 인용되는 수강생들의 분석 사례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글쓰기 과제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소개하는 것이다.

42) 마르쿠제, 앞의 책, 57쪽.

된 욕구는 “고역, 공격성, 비참함, 부정의”를 지속적으로 동반하지만, 정작 개별 주체는 이것을 행복과 만족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⁴³⁾ 경쟁에 특화된 기업가적 자아는 경제적 이해와 선택을 절대화하면서, 자기 관리를 자유의 제한이 아닌 증식으로 해석한다.⁴⁴⁾ 한편,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이 ‘거짓된 욕구’임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은 일차원성의 안락함을 균열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적, 비판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일차원적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독자에게 제공하는 또 다른 문제 의식은 자본주의/신자유주의가 우연한 현상이나 사실(역사적 구성물)일 뿐, 궁극적인 본질이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의 학생들은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인지하면서도, 체제 내 개혁만을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자본주의를 하나의 경제 체제(a system)가 아니라 고정불변, 유일무이의 체제(the system)로 전제했던 것이다. 일차원적 사회는 주어진 현실을 규범화하기 때문에, 일차원적 인간에게 기성 체제에 대한 “신념 없는 신념”(faithless faith)을 형성시킨다.⁴⁵⁾ 신념 없는 신념은 발터 벤야민의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개념과 조응한다. 벤야민은 자본주의의 종교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주의는 (...) 가장 극단적인 제의종교일 것이다. 자본주의는 특정한 교리도 신학도 모른다. 자본주의는 꿈(희망)도 자비도 없는 제의를 거행하는 일이다. (...) 이 자본주의라는 종교운동의 본질은 종말까지 견디기 (...) 세계 전체가 절망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견디기이다. 그것은 절망의 상태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 절망이 종교적 보편 상태로까지 확장되어, 그 상태에서 구원을 기대한다는 것이다.⁴⁶⁾

43) Marcuse, 앞의 책, p.7.

44) Lois McNay, “Self as Enterprise,” *Theory, Culture, & Society* 26.6, 2009, p.61.

45) Marcuse, 앞의 책, p.122. 신념 없는 신념은 신앙의 진정한 내용과 근거 없이, 기계적으로 신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일차원적 세계가 제시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타당한 신심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46) 발터 벤야민,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발터 벤야민 선집 5: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 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역, 길, 2008, 122쪽, 123쪽.

교리도 신학도 없는 자본주의교는 오로지 반복적인 제의를 통해서만 종교성을 유지하고 획득한다.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는 “인간의 구원을 좌우”하고 “도덕성을 시험”하며 “죄를 심판하는” 종교적 가치 체계로 작동한다.⁴⁷⁾ 자본주의교는 인간에게 채무자라는 죄를 부여하고, 인간은 채무(죄)의 책임을 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주체가 된다.⁴⁸⁾

자본주의에 대한 신앙(종교심)은 종말까지 견뎌 구원을 기대하고 “탈출할 길이 없는 상태로 죄를” 짊어진다는 측면에서⁴⁹⁾ 벌랜트의 ‘잔인한 낙관주의’와도 공명한다. 수강생들은 ‘헬조선에서 준비하기’에 피로와 탈진을 느끼고,⁵⁰⁾ ‘헬’이라는 신성 모독의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신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신념(믿음)을 거두지 못한다. 자신의 시장 가치와 인적 자본을 늘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불안은 그들을 끊임없는 생존 투쟁으로 몰아넣는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학생들은 바쁨을 생산성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단한 자기 규제나 착취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키에르케고어는 분주함이 인간의 본성인 정신적 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분주함 속에서는 자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투명성(transparency)을 획득할 수 있는 고요한 평정심과 시간이 존재할 수 없다. 분주함은 자신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거울 앞에 멈춰 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형상을 바라볼 수 없다.⁵¹⁾

Z세대 자기계발 주체들은 내면의 거울 앞에 멈춰 서서 자신을 오래 응시할 여유가 없다. 성과와 인적 자본의 산출, “나 주식회사”(Me Inc.)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처절한 ‘노오오력’을 경주하며 부단히, 바쁘게 움직여야 하

47) 이경진,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문학과사회』 27권 3호, 2014, 462쪽.

48) 같은 글, 472쪽. 이경진에 따르면, 독일어에서 ‘믿는 자’(gläubiger)는 채권자를 의미한다. 같은 글, 471쪽.

49) 벤야민, 앞의 글, 125쪽.

50) ‘준비’는 존나게 버티기의 줄임말로 끈질기게 견디는 것을 뜻한다.

51) Søren Kierkegaard, *Upbuilding Discourses in Various Spirits*, Princeton: Princeton UP 1993, p.67.

기 때문이다.⁵²⁾ 에리히 프롬은 활동(activity)과 분주함을 구분하면서, 자신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활동을 생산적/자발적 활동으로, 단순히 바쁜 삶을 수동적 능동성/소외된 활동으로 정의한다.⁵³⁾ 학생들의 분주한 삶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외부적 강제를 타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수동적인 것이다.⁵⁴⁾

한편, 자본주의교에 대한 신념 없는 신념에 따라, 학생들은 『일차원적 인간』을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텍스트로 단정함으로써 심리적인 저항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마르쿠제는 일차원적 사회에서는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라는 명제가 절대적으로 지지된다고 언급한다.⁵⁵⁾ 즉, 지배적인 체제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비현실적인 사변”(unrealistic speculation)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⁵⁶⁾ 따라서 일차원적 사회에서는 기존 체제를 “초월하는 관념, 열망, 목표”는 현실 가능성의 범위에서 제외되며,⁵⁷⁾ 이러한 작용이야말로 체제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이다. 학생들이 마르쿠제가 제안하는 질적 변혁이나 일차원성의 극복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독자들이 현존하는 자본주의를 가장 합리적인 체제로 생각하는 한, 자본주의를 극복하거나 자본주의를 전제하지 않는 사회 변혁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마르쿠제의 분석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합리성, 효율성, (불/)가능성을 정의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열어준다. 지배 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개념을 “환상이나 무의미”한 몽상으로 치부함으로써⁵⁸⁾ 욕망과 희망에 대한 상상력이 제한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믿어 왔던 ‘좋은 삶’에 대한 표상이 어떤 이데올로기의 억제에서 구성된 것인지 알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좋은 삶 ‘들’의 ‘선택 가능성’을 재고하게 된다. 그뿐만

52) ‘나 주식회사’에 관련해서는 미키 맥기, 『자기계발의 뒷』, 김상화 역, 모요사, 2009, 36쪽 참고.

53)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 역, 까치, 2014, 133쪽.

54) 같은 책, 134쪽.

55) 마르쿠제, 앞의 책, 173쪽.

56) 같은 책, 39쪽.

57) 같은 책, 56쪽, 59쪽.

58) 같은 책, 62쪽.

아니라, 이러한 통찰을 통해 극심한 생존 투쟁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부적응과 위화감이 역량의 부족이나 개인적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즉,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유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과 행복을 규정하는 지배 가치가 자신에게 억압적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V. 부정적 사유의 적용과 한계

몸을 흔들어, 움직여, 움직이라고. (...)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에게 움직임을 지배할 능력이 없어. 우리의 몸은 움직일 때 비로소 신성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 움직여야만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는 정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꼼짝도 하지 않는 것,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모든 것을 지배해.⁵⁹⁾

학생들이 『일차원적 인간』에서 배운 부정적 사유를 자신의 일상 문화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적용한 영역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소비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최면술적/마술적 언어이다. 학생 B는 “지금 놀면 나는 쓰레기”라는 청년 세대의 관용어를 다루면서 ‘놀다’와 ‘쓰레기’라는 의미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장에는 바쁜 삶에 대한 사회적 강요와 찬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 C는 인싸(insider)/아싸(outsider)의 이분법이 평범한 대학생의 삶을 “아싸”로 치환시켰다고 비판한다.⁶⁰⁾ 또한, “인싸들이 가는 핫플(hot place)”, “인싸들이 사용하는 잇(it) 아이템” 등의 광고 문구가 대중의 욕망을 동질화시키는 한편, 소비시장주의를 부추긴다고 분석한다.

Z세대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와 온라인 문화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 때문에, 온라인/SNS 문화에 나타나는 일차원적 언어의 문제를 가장 현실적

59) 올라 토카르추크, 『방랑자들』, 최성은 역, 민음사, 2019, 389쪽.

60) ‘인싸’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인기를 얻는 사람으로 최신 유행에 민감하고 외향적이며, 친구가 많은 호감형 캐릭터로 정의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인싸(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의식하면서, 자기 검열을 경험한다.

으로 체감했다. 대다수 학생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를 사용하면서, 글자 수 제한에 맞추거나 짧은 단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의미의 축약과 생략을 일상적으로 겪는다. 여러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좋아요’나 조회 수가 많은 의견을 지지하는 문화 자체가 담론의 폐쇄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학생 D도 인스타그램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사진(이미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르쿠제가 진단한 의미의 압축과 생략이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학생 E는 해시태그가 일차원적 사고를 강화하는 도구라고 지적하면서, 태그로 게시물들을 모아 보는 속성으로 인해 태그한 단어의 개념이 획일적으로 고정된다고 강조한다. 몇몇 학생들은 검색 알고리즘의 연관 검색어를 예로 들면서, 무관한 의미들을 통합하는 사고가 대중에게 주입되고 관습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일차원적 인간』을 통해 생존 투쟁에 매몰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직접적 동일화와 최면술적/마술적 언어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좋은 삶’과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숙고한다. 그러나 수업 토론과 글쓰기 과제, 논술 시험의 경향성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예리하게 진단하지만, 그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혹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Z세대 청년들은 사회 구조적인 해결이나 정치적 변화를 불신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집합 정체성의 발달을 가로막는다.⁶¹⁾ 많은 학생이 ‘나 하나가 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혹은 ‘나 혼자만 다르게 살면, 나만 손해 보고 도태된다.’라고 항변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 신자유주의적 성과 주체는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므로, 공동의 행위를 도모하는 “정치적 우리”를 형성하지 못한다.⁶²⁾ ‘헬조선’이 미개하다는 불만은 헬조선을 문명화시켜야 한다는 개인적/공동체적 책임감을 동반하지 않고, 헬조선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능력자 개인만을 상정한다. 이렇듯,

61) 박치완도 개인화와 집합적 정체성 약화를 Z세대의 대표적 특성으로 파악한다. 앞의 글, 17쪽.

62) 한병철, 앞의 책, 17쪽.

이 시대 청년들의 정치 혐오나 냉소주의는 “집단적 행위 주체성”의 쇠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⁶³⁾

둘째, 학생들은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사회적 배제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해야 한다는 생존주의를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다.⁶⁴⁾ 고용 절벽의 물질적 조건은 생존주의라는 “마음의 레짐”(regime)으로부터 탈주를 어렵게 만든다.⁶⁵⁾ 프롬은 소유 지향적 사회에서는 재산이 현대인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안전대”나 “목발”의 기능을 한다고 비평한다.⁶⁶⁾ 학생들은 물질적 부가 없는 삶을 안전대나 목발 없이 걷는 위험한 삶으로 여긴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존재의 ‘현실’이자 ‘지향점’이 되는 사회에서, 자신의 “경쟁력 제고와 가치상승”을 위한 인적 자본을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 자살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⁶⁷⁾ 따라서, 학생들은 능력주의(meritocracy)와 생존주의를 접합시키고, 잔인한 낙관주의로 생존의 평화 회복을 체념하기에 이른다.

셋째,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의 미비는 내면화된 수동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입시 제도를 통과해서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다시 취업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탐험하고,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해 본 경험이 거의 희박하다. 그들은 사회가 정해 놓은 규범과 틀 안에서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Z세대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가시적인 성과와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행동에는 쉽게 동기 부여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차원적 인간』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순을 파악하게 되었지만, 배운 지식을 자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체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주체적 능동성이 부족하다. 잃어버린 내적 공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직접적 동일화를 극복할 것인지, 생존과 부의 축적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동성의 회복과 훈련이 요구된다.

63) 박권일, 앞의 글, 86쪽.

64) 김홍중, 앞의 글, 186쪽.

65) ‘마음의 레짐’은 김홍중이 생존주의의 특성을 설명하며 사용한 용어이다. 같은 글, 186쪽.

66) 프롬, 앞의 책, 131쪽.

67) 브라운, 앞의 책, 39쪽, 42쪽.

VI. 나가며

독서가 그것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을 마법의 열쇠로서 우리 내부에 위치한 장소들의 문을 열어주는 존재로 남아 있는 한, 독서는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⁶⁸⁾

교육은 또한 민주적 실천을 통해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시금 투쟁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있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종점이 없으며, 정의와 희망이 숨 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세계를 향해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⁶⁹⁾

학생들은 『일차원적 인간』 읽기/토론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했던 자유가 “억압적인 욕구”(repressive needs)나, “기만적인 자유”였다는 것을 깨닫고,⁷⁰⁾ 직접적 동일화의 일차원성과 최면술적/마술적 언어의 문제점을 간파한다. 더불어,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우연한 현상이지 궁극적인 진리나 본질이 아니라는 것도 자각한다. 반면, 그들은 청년 실업과 생존 불안을 경험하면서, 생존 투쟁에 대한 몰입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실존의 평화 회복을 포기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전 읽기의 의미와 가능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마르쿠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인용하면서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 먼저 “배우고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고, “자기를 해방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⁷¹⁾ 브라운도 루소의 역설에 기대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인민이” 먼저 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²⁾ 대학에서 교양 교육과 고전 읽기 과목은 바로 ‘먼저 해방된 노예’, ‘계몽된 인민’을 양성

68) 마르셀 프루스트, 『독서에 관하여』, 유예진 역, 은행나무, 2014, 38쪽.

69) 지루, 앞의 책, 199쪽.

70) Marcuse, p.7, p.9.

71) 마르쿠제, 앞의 책, 88쪽.

72) 브라운, 앞의 책, 271쪽. 루소의 역설이란 “사회제도의 결과물이어야 하는 사회의식”이 그 제도의 설립 이전에 실재하는 인간의 형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같은 책, 370쪽.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전 도서 한 권이나, 인문학 교양 과목 하나로 학생들의 의식이나 삶이 일거에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고전 읽기 수업은 해방과 계몽이 필요하다는 당위(이데아)를 교육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한계 또한 변할 수 없는 본질이나 진리가 아니다. 학생들이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장함에 따라, 생존주의나 잔인한 낙관주의, 내면화된 수동성에 대해서도 변화된 관점과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일차원적 인간』이 학생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지만, 멈추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이나 다른 길을 찾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교육을 “민주적 공공 생활의 붕괴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대응”으로 인식한다면,⁷³⁾ 마르쿠제가 말하는 본질적인 가능성, 당위의 실현은 대학의 운영, 교육자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여전히 열려 있다.

73) 지루, 앞의 책, 195쪽.

■ 참고문헌

-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권 1호, 2015.
-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최지향 역, 청림출판, 2014.
- 더글러스 켈너, 「제2판 서문」, H.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 박병진 역, 한
마음사, 2009.
- 마르셀 프루스트, 『독서에 관하여』, 유예진 역, 은행나무, 2014.
- 마사 누스바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우석영 역, 궁리, 2011.
- 매리언 울프, 『다시, 책으로』, 정병근 역, 어크로스, 2019.
- 미키 맥기, 『자기계발의 뒷』, 김상화 역, 모요사, 2009.
- 박권일, 「헬조선 체제를 유지하는 파국론」, 『황해문화』 90호, 2016.
- 박치완,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문화콘텐츠
연구』 26호, 2019.
- 발터 벤야민,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발터 벤야민 선집 5: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 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역, 길, 2008.
- 쇠얀 키에르케고어, 『반복/현대의 비판』, 임춘갑 역, 치우, 2011.
-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 역, 까치, 2014.
- 올가 토카르추크, 『방랑자들』, 최성은 역, 민음사, 2019.
- 웬디 브라운, 『민주주의 살해하기』, 방진이 역, 내인생의책, 2017.
- 윌리엄 파워스, 『속도에서 깊이로』, 임현경 역, 21세기 북스, 2019.
- 이경진,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문학과사회』 27권 3호, 2014.
- 지그문트 바우만,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조은평·강지은 역, 동녘, 2012.
- 탕누어, 『마르케스의 서재에서』, 김태성·김영화 역, 글항아리, 2017.
- 한병철, 『심리 정치』,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5.
-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 박병진 역, 한마음사, 2009.
- 헨리 지루, 『신자유주의 테러리즘』, 변종현 역, 인간사랑, 2009.
- Berlant, Lauren, "Cruel Optimism,"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Vol. 17 No. 3, 2006.
- Foucault, Michel, *The Birth of Bio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Kierkegaard, Søren, *Upbuilding Discourses in Various Spirits*, Princeton: Princeton UP, 1993.

Marcuse, Herbert, *One-Dimensional M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McNay, Lois, “Self as Enterprise,” *Theory, Culture, & Society* Vol. 26 No. 6, 2009.

<인터넷 자료>

Grossman, Lev, “Jonathan Franzen: Great American Novelist,” *Time*, Aug. 12, 2010.
<http://content.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2010185,00.html>
(검색일 2020.1.15.)

❖ ABSTRACT

The Implication and the Prospect of
Reading Classics in the Neoliberal Era:
Reading *One-Dimensional Man* by Herbert Marcuse

Kim, Jihye
Ewha Womans University

Herbert Marcuse, in his 1964 publication *One-Dimensional Man*, offers criticism against the hegemony of technological rationality that engrosses people to the labor of earning a livelihood and renders a society vulnerable to totalitarianis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lications and the possibilities of classics-reading university lectures in a time when the logic of neoliberalism is expanding in higher education. It is often noted that Generation Z students, the *homo economicus* digital natives, lack deep reading capacities and cognitive patience due to the expansive influence of digital/online cultures. They are also entrepreneurial subjects who bear self-exhaustion with “cruel optimism” and focus on increasing their human capital. Nevertheless, students in a university lecture reading *One-Dimensional Man* recognized the drawbacks of “immediate identification” in the course of reading and discussing the material, and produced critical analyses on how hypnotic/magical languages close the universe of discourse. They also understood that capitalism and neoliberalism are historically contingent appearances that can not be acknowledged as an ultimate truth or essence. The students portrayed an inclination to withdraw from achieving the pacification of existence because of their precarious chance of survival and internalized passivity.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the role of liberal education and classics reading lectures in universities to facilitate students’ realization that an autonomous life is attainable by transcending one’s struggle of existence and practicing negative thinking.

Key Words : *One-Dimensional Man*, classics reading, *homo economicus*, immediate identification, struggle of existence, negative thinking, liberal education

■ 논문접수일 : 2020. 02. 10

■ 심사완료일 : 2020. 03. 02

■ 게재확정일 : 2020. 03. 03

